

이재명, 첫 '영수회담'서 던질 의제는?

李 “가감 없는 총선 민의 전달할 것” 강조 실종됐던 정치권 대화·타협 살아날지 관심 민생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 언급 주목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공언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의제를 던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영수 회담’에서는 이 대표가 먼저 총선 민의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질문하거나 요청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거나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첫 ‘영수 회담’인 만큼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어느 정도의 온도로 나눴는가에 따라 그간 정치권에 실종됐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회생할 수 있을지 가능해 보는 척도가 될 것이라 분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회담은 29

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제 제한이 없는 차담 형식으로 열린다. 정해진 의제가 없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지만 오·만찬 형식에 비해 회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으리란 전망도 나온다. 물론 첫 ‘영수 회담’ 그 자체가 성과라는 지적도 공존한다. 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생 분야에서 자신이 줄곧 주장해 온 ‘민생지원금 2만원 지급’ 필요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았으나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따져 물을 가능성이 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거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안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할 수도 있다. 국정 기초 전환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체를 촉

구하면서 각종 특검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일단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방 송 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행사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

과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 면전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거론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회담 실무협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영수 회담이 열린다. 이 대표가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부터 무려 700여일만”이라면서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영수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줬던 태도는 국정 기초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영수 회담이 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는 자리 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0 총선을 통해 국민이 분명히 명령했고 영수 회담은 그런 총선 민의에 대통령께서 화답하는 자리”라며 “대통령의 답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마지막 5월 임시국회도 ‘강 대 강’ 대치

野 “쟁점법안 관철” vs 與 “민생 법안만” 여소야대 속 김건희·한동훈 특검 ‘화약고’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반복될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여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을 매듭짓겠다고 버리고 있는 반면, 의석 수 열세인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정무위),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등에 대해서도

5월 말 처리를 버리고 있다. 아울러 제2 양곡법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등의 재입법 추진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5월 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날짜를 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국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은 다루지 말고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 등은 다음 국회로 넘기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비쟁점 법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의 경우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이고, 제2 양곡법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의 뜻을 표명해 윤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처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여야 간 날 선 대치는 22대 국회의 예고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번 총선을 통해 192석을 확보하는 등 ‘여소야대’ 구도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권이 공조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은 정치권의 화약고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새 국회 개원 즉시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벌써 민주당과 발의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또 다른 법안인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尹대통령,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지명

“청문회 고려해 신중 검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공석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 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경남 산청 출신의 오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

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해 9월 이뤄져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진수 기자

與, 두달짜리 비대위원장 오리무중

4·10 총선 참패 이후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수습 절차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상황을 공유한다. 앞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수습 로드

맵은 비대위 구성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당 대표 선출이다. 따라서 이번 비대위원장은 전대 준비하는 관리형 모델이다. 전권을 쥐고 당 수습을 이끄는 역할이 아니어서 권한이 제한적이고 임기도 두 달 안팎 정도다.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직 없

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28일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다들 고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윤 권한대행은 5월 3일 새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계획이었으나 ‘구인난’ 때문에 이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권한대행이 그간 접촉한 당내 중진들은 잇달아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